

# 김산호 회화극본 **부처님** The story of Holy Buddha

# 부처님

제2화 룸비니 동산의 기적 ㉔



**사** 랍들은 아쇼카 나무 밑에 잠막을 쳤다. 아쇼카 나무는 한역으로 '무우수(無憂樹)'라 쓰며 그 뜻은 '근심없는 나무'이다. 이 나무는 봄을 상징하는 나무로 순백의 꽃을 피우는 상서로운 나무로 알려져 있다.

이리하여 마야데비 왕비는 아쇼카(무우수)나무의 그늘에서 부처님이 되실 아기를 생산하게 되니 대체로 보아 기원전 560년경이다. 인도의 기록에 따르면 바이사카 달의 보름날 왕비가 잉태

의 꿈을 꾸었으므로 그로부터 10개월 뒤라면 양력으로 3월 초순이 되고 중국력으로는 3월 보름에 해당한다. 이처럼 날짜가 서로 틀리는 것은 인도에는 서로 날짜를 달리하는 달력들이 서너개 전해오고 있어서 부처님의 탄생을 어느 달력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4월 초파일로 환산하여 부처님의 탄일로 경축해 오고 있다. 바이사카(Vaisakha)달(月)은 인도달력의 둘째 달이다



**아** 기 성인(天)은 태어나자마자 즉시 그의 천안(天眼)을 열고 사방을 둘러보며 모든 국토와 온갖 생물들을 살펴보았다 했다. 또한 아기 성인(天)은 즉시 유모의 손을 벗어나 동 서 남 북 사방(十方)을 차례로 둘러본 후, 어느 곳에도 지계(持戒)와 선정(禪定), 지혜(智慧), 선근(善根)에 있어서 자기만한 경지에 도달한 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 기록은 성인(天)의 탄생을 알리기 위한 기록이며 윤회사상을 배경에 깔고 있다. 어쨌든 아기성인이 북쪽을 향하여 즉행칠보(即行七步)하는데 그가 한걸음 한걸음 옮길 때마다 그 자리에 연꽃이 피어났다고 하며, 이때 아기성인은 일곱 번째 걸음에서 멈춰서서 한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다른 한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이라고 선언하였는데, 이 말을 그대로 들어보면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는 뜻이 된다.

**천** 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치는 아기성인의 선언이 끝나자 땅에서는 일곱 가지의 기적이 잇따라 일어났으니 갑자기 바람이 멈추었으며 천지가 진동을 했고 새들이 은신처를 찾아 숨었다. 모든 나무들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으며 고요와 평화가 온 땅을 지배하였다.

성인의 탄생에는 언제나 감동적인 설화가 따라 붙기 마련이다. 아기왕자의 탄생소식은 즉각 카필라바스투 성으로 알려졌고 온 백성들은 모두가 왕자의 탄생을 축하하였다. 숲도다나 라자도 하던 정무를 접어 두고 즉시 말을 달려 룸비니 동산에 도착하였다.



**장** 차 사카족을 이끌고 가게 될 태자를 가슴에 안고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이름을 주기 위하여 고심하던 숲도다나 라지는 마침내 태자의 이름을 결정하였으니 싯다르타(Siddhartha) 고타마(Gotama)였다. 'Siddhartha의 'Sid'은 '성취하다'는 뜻이고 'Artha'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여서 '모든 것을

성취하다'라는 뜻이 된다. '싯다르타'의 한문표기는 '의성싯다태자(義成悉多太子)'이다. 성씨 '고타마(Gotama)'는 '가장 훌륭한 소'라는 의미이다. 이리하여 싯다르타 고타마의 이름으로 부처님의 어린시절 이야기가 그 막을 열게 된다.

**태** 어나자마자 즉행칠보(即行七步)를 하며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선언했다는 부처님의 행적을 어떻게 이해해야만 하는 것일까? 불전을 처음 대하는 젊은이들이 공통적으로 곤혹스럽게 느끼는 대목이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윤회전생(輪廻轉生) 사상을 이해해야 한다. 즉 부처님은 중생을 고통속에서 구한다는 사명을 띠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이미 완성된 인격체였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위치와 앞으로 인간으로서 완수해야 할 임무를 미리 말한 것 뿐이다. 싯다르타 고타마가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고 있을 무렵 히말라야 산맥의 깊숙한 산속에서 수도에만 전념하던 선인(仙人)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아시타(Asita)였다. 선인은 '이시(isi)'라 표기되는데 본래는 리그베다 성전을 독송하는 바라문(婆羅門)에 대한 호칭이다.

**그** 날 그는 점심 식사후 잠시 잠에 빠져 들었는데 그때 33명의 신들이 꿈에 나타나 즐겁게 춤을 추면서 '사카족의 땅 룸비니 동산에서 장차 부처님이 되실 성인(聖人)이 태어났다. 그 분은 살아 생명을 가진 모든 이들 중 가장 높은 자이다. 장차 '선인들의 숲'에서 법륜(法輪)을 굴리실 것이다'라며 노래했다.

